

“여성불자 정진은 불교 희망”



조계종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2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를 찾아 승만 보살 10대원 정진 1100일을 맞은 여성 불자들이 활발한 실행활동과 함께 불자의 사회적 역할확대에서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영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昨夜夢中 頭頭佛 작아몽중 두두불
今朝開眼 物物薩 今朝개안 물물살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머리마다 모두 부처이더니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불건불건마다 보살이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즉, 부처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뜬과 동시에 가정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살로 거듭거듭 다가가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법은 유익도 아니고 무익도 아니고 그대로 있음을 설합니다. 불자가 어떻게 보살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애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여러분이 틀림없이 승만 부인처럼 성불할 것이라 믿음이 생깁니다.

얼마 전 대만에 갔습니다. 불교 5대 기념일 중 하나인 우란분절을 맞아 승공법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탄생·출가·성도·열반과 함께 우란분절의 의미는 큼니다.

우란분절은 원래 석가모니의 10대 제자가운데 한 분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지옥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우란분경>의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餓鬼)의 세계에 빠져 고통 받고 있음을 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승려들이 모두 모여 참회하는 자자(自恣)를 행할 때 음식 등을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구제됐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이 우란분절을 더욱 확대해

승공법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승공법회를 하며 지옥 중생의 구제를 기원하면서 재가자들도 스님들과 함께 스스로를 참회하고 정진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대만에서 불교문화가 사회에 크게 자리한 데는 바로 인간불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불교, 대승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불교의 특징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1100일 동안 승만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 말했던 시구처럼 우리는 보살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주인 의식 가질때 참불자

일념이 곧 수처작주

마음 집중에는 남녀 구분 없어

“멀리 창밖을 보니 처처마다 주인이더라.” 여러분은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임제 선사께서는 ‘수처작주 임제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처처에서 스스로 주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저는 경봉 스님을 모시고 선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대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선방에서 있을때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경봉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법당이 가득 차다 못해 마당이고 산이고 사람들이 서서 듣는데 경봉 스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은 쇼야, 사바세계를 무대로 주인공으로 멋지게 쇼를 하는 거야.”

경봉 스님의 이 말씀도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용 스님은 참사람 운동을 했습니다. 그 근본도 바로 수처작주 임제개진입니다. 지금 스스로 서있는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일념으로 이어집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있으며 간혹선 수행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침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수행에서는 일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아무리 앉아도 일념이 없으면 화두가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는 여기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매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도 많고 복잡한 삶을 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행하길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매순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남매, 승속이 따로 없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거사들, 또 승만 부인 같은 보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삶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욱 보살피고 일념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은 바른생각·자신감 가져야”



BBS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은 2월 2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 당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명품콘서트’를 열었다. 서울경기불자청년회가 개최한 이날 ‘두런두런 토크콘서트’서 정목 스님은 취업난과 경제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건네는 법문을 했다.

노덕현 기자

정목 스님 (정각사 주지)

저는 26살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동국대 추천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느낀 바로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는 인생의 계기가 된 일이 찾아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지도법사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26살에 시작해 31살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배웠던 간에 재가자들은 머리 깎은 스님들에게 큰절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스님이기에 의례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재가자들을 보며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찰에 갖고 오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이며 삶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는 끼니도 굶어가며 일한 이들이 자기 집안과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며 환풍 두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전파에서 무료상담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와 병원 일하고 저녁에 상담전화를 받았습니.

저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불륜과 같은 범죄들은 2-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특히 어린나이에 아버지와 딸의 성관계 등은 절 집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절집에서는 그저 새벽에 경건보

고 기도하고 청정한 삶을 꾸리던 되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 온통 사람들이 어지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저 스스로도 그런 고통을 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치열한 삶을 영위하는 재가자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는 앉아서 절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절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가 종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축원해 준다고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의말 경청할때 지혜생겨

삼업정정·탐진치 다스리고

‘원리전도 몽상’ 꿈을 펼치자

이런 생각에 17년간을 사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절에서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세상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힘들어 하는 그들을 한 번씩만 일으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나이가 54세가 됐습니다.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수행자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이 있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곁에 있는 것이 절이요, 스님이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천처법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세상천지가 법당이던 생각에 52세가 될 때까지 주지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지로 있는 사찰도 은사스님이 연로 하셔서 맡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천처법당’, 사람이 법당이고 그곳이 법당이여야 한다는 마음에 20년 전부터 인터넷 법당인 유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불자님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불자들이 스스로의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지만 분노의 상태에서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음 밑바닥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의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면 한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은 뒤집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불자의 길이란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정정하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 청년 불자들을 보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숨 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려 하시는 일들이 잘되실 것입니다.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초급과정 : 도량성, 쇠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범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부 (중급과정 부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대한불교 선종

음 정월 15일 해제를 마치며

서기 2012년 음 10월 15일 대한불교선종대원사 사부대중, 주석 스님 몇분과 불자 200여명은 선불교에 대한 연구와 발표 참선, 명상, 위빠사나 여러방편으로 3개월의 수행법회를 공부한 결과 2013년 계사년 음 1월 15일 해제 법회를 성대히 성만하였고,

다가오는 하계 결제와 지금의 원만성취를 즐거워 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있는 병들은 의술로 치료와 약을 가지고 고칠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병들은 무엇으로 고칠수 있으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모든 것을 이룰지이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해안로 1545번길 24호
■ 전화 054)261-7777 / 팩스 054)261-6119

선(禪)불교 대 학
선(禪)불교 승가대학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종교와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학년	불교인문, 부처님상에대승불교, 불전개설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I, II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 입학원서 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촌 성흥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심통사 : 02.496.3803 성남 화상사 : 031.745.1482 일산 화상사 : 031.905.2912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구리 금강사 : 031.563.9364 안양 대인사 : 031.459.3666 안산 월광사 : 031.419.5048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군포 성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까지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금강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